

법원 왜 이러나

민주 배기운 의원 참여재판 고지 절차 누락 항소심 지연 대법원 선고 9월 30일 이후에나... 10월 재선거 어려울듯 전갑길 전 구청장·서남대 수뢰 교육부 직원 사건도 '실수'

1심 재판부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법리 검토나 절차를 지키지 못해 재판이 미뤄지거나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재판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 선고가 연기되면서 정치 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주교법 형사1부는 (부장판사 김대웅)는 4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의 재판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항소심 선고를 미루고 재판의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배 의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합의부에서 배 의원에겐 우편으로 보낸 공소장 및 국민 참여재판 안내가 '폐문부재'로 반송되면서 국민참여 재판 참여의사를 묻고 1주일간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절차가 생략돼 버린 사실이 발견돼 선고가 미뤄졌다.

참여재판 대상 사건에서는 우편이 반송됐다면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참여재판 여부를 묻고, 그 1주일 뒤 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든 형사합의

사건을 참여재판 대상으로 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9일 공판에서 배 의원에겐 참여재판 의사를 물을 방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 의원이 참여재판을 바라고 참여재판 배제 사유가 없으면,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내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배 의원이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참여재판 성사나 당선무효형 선고 여부와 무관하게 오는 10월 나주·화

순의 국회의원 재선거는 치러지지 어렵게 됐다.

해당 지역구에서는 예정대로라면 4일 항소심 선고가 나온 뒤 9월30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어 당선무효형 선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9월 말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배 의원은 지난 2~3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의 선거운동 대가로 37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

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외에도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의 뇌물 사건에서도 참여재판 안내가 생략되면서 비슷한 차질을 빚었다. 전 전 구청장은 참여재판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이 사건은 원심 파기 없이 광주교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기소된 교육부 직원 양모(39)씨에 대해 선고하면서 벌금형을 누락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컬러풀한 우산행렬 광주·전남지역에 하루 종일 장맛비가 내린 4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거리에 우산을 쓴 행인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경찰 총경급 234명 인사

서부서장 김재석
고흥서장 안병갑

이번 인사로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안병갑 수사과장이 고흥서장, 김재석 생활안전과장은 서부서장, 김평재 경비교통과장은 경기 양주서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김홍균 서부서장은 광주청 생활안전과장, 김근 광산서장은 광주청 정보과장, 백혜웅 전남청 지도관이 광주청 경비교통과장, 김창수 인

천청 지도관이 광주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각각 발령됐고 김원국 전남청 정보과장은 광주 광산서장, 이기욱 경찰청 항공과장은 남부서장으로 자리를 바꿨다. 광주청 수사과장에는 인천청 김철우 총경이 발령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박병동 경무과장이 장흥서장으로 김영근 생활안전과장은 보성서장, 강철원 보안과장이 함평서장, 박근주 청문감사담당관은 진도서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또 김성열 장흥서장은 전남청 청문

감사담당관, 노재호 보성서장은 전남청 청무과장, 민성태 담양서장은 전남청 생활안전과장, 양성진 완도서장은 전남청 정보과장, 김재병 전남청 지도관은 보안과장으로 각각 발령됐다. 신임 담양서장에는 박지영 경찰청 교육담당관이, 완도서장에는 나은우 제2 수사과장이 임명됐고, 임흥기 진도서장은 서울청 수사과로 옮겼다.

경찰청은 이의 전준호 광주청 정보과장을 광주청 지도관으로 발령했다. /김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대검 중수부 폐지

'반부패부' 가닥

서울지검 특수4부 신설

지난 4월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신설 조직의 이름이 '반부패부'로 정해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가 신설되고 옛 대검 중수부 소속 인력 상당수가 특수4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이 대검 중수부를 대신할 조직으로 결정한 '반부패부'는 직접 수사 기능은 없지만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총괄지휘부 역할을 하게 된다.

대검 중수부 소속이던 일부 인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되는 특수4부로 이동해 수사를 계속하게 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특수 1~3부에 20여명의 검사가 특별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부 정원은 60명 안팎이었다. 하지만 실제 파견받는 인력을 합하면 가장 많을 때 150명 가량 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인력은 옛 대검 중수부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법무부의 방안"이라며 "검찰 개혁의 일환인 만큼 법무부의 바람대로 인력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반부패부와 특수4부라는 이름은 법무부가 원하는 이름인데 통상 이름은 해당 조직이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게 관례"라고 덧붙였다.

/연필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3분 해질 19시 50분 달출 02시 54분 달몰 17시 18분

비오는 주말
비 오는 가운데 바람 강하게 부는 곳 있겠다.

광주	비	24/27°C
목포	비	23/26°C
여수	비	23/25°C
나주	비	23/26°C
완도	비	24/28°C
구례	비	24/28°C
강진	비	24/28°C
해남	비	24/28°C
장흥	비	24/29°C
순천	비	23/27°C
영광	비	23/26°C
진도	비	24/28°C
군산	비	23/26°C
남원	비	23/26°C
옥산도	비	23/25°C

시중독자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위험 높음 낮음

날짜	6(토)	7(일)	8(월)	9(화)	10(수)	11(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23/29	23/28	23/28	23/29	23/31	22/30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전남 최고 200mm 큰 비 온다

주말·휴일 천둥·번개 동반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장마전선은 이날 낮 일시적으로 세력이 약해졌다가, 밤부터 발달해 6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60~150mm, 곳에 따라 최고 20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는 7일 오전에도 광주·전남 지역에 비 소식이 있으며, 비는 8일까지 이어지다가 이날 오후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일본뇌염 경보' 첫 발령

질병관리본부는 4일 전국에 올해 처음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이 같은 경보 발령은 작년(7월 19일)에 비해 약 2주정도 이른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부산 지역에서 전체 하루 채집 모기 가운데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의 비중이 50%를 넘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3일 부산에 서 채집된 모기 가운데 64.4%가 작은빨간집모기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직 부산을 제외한 전국 37개 조사지역에서는 일본뇌염모기의 비중이 50%를 넘지 않고 있다.

작은빨간집모기라든가 모두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바이러스 보유 모기에 물릴 경우 5% 정도는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두통·경련·혼수·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연합뉴스

www.HanaTour.com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올 여름휴가는 하나투어 광주/전남 전용 상품으로 떠나세요!

편안한 무안출발 전세기 상품

마카오 & 홍콩 7월27일,30일,8월 2일, 5일 2박 4일(총4회)

필리핀 세부 8월7일 ~ 8월17일(총4회) 수요일(3박4일)/토요일(4박5일)

미중부 캐나다 8박 10일

출발일 9월 13일(금) 3,990,000원

일본여행 7월13일 1,180,000원 / 8월20일 1,280,000원

진중모객 [JKP764-BKF] 6/15~7/17(총4회) 199,000원

트레킹 상품 [AMK113-ZE01] 코타키나발루 정상등정 & 산호섬 휴양 4박5일 1,680,000원

시베리아 [APPF01-22] 세부 4일/5일 899,000원 ~

대만 [APPF01-22] 세부 4일/5일 1,099,000원 ~

시베리아 [APPF05-22] 세부 4일/5일 999,000원 ~

대만 [APPF02-22] 세부 4일/5일 1,199,000원 ~

시베리아 [CHPF05-NX1] *스텔리아미켓* 마카오/홍콩 4일 899,000원 ~

대만 [CHPF07-NX1] *오몽당버스* 마카오/홍콩/심천 4일 949,000원 ~

시베리아 [CHPF05-NXA] *셀라롱초탈세+마카오의일광관광* 마카오/홍콩 4일 1,099,000원 ~

대만 [CHPF05-NXC] *NO TIP+홍콩360+시니트로트* 마카오/홍콩 4일 1,099,000원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의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로구 광명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구구청) ■관광블로그 Tel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